

한국설화의 남성성은 어디에서 탄생했는가, 남성성(男性性) 연구사의 마이너리티와 젠더적 남성성의 시작점 문제*

-〈최진후 설화〉에 나타난 여신살해와 남성성 탄생의 이니시에이션을 중심으로-

권도경*

|| 차례 ||

- I. 문제설정의 방향
- II. 한국설화의 여성성 분류에 대한 재검토와 젠더적 남성성의 체계
- III. 〈최진후 설화〉의 계열분류와 젠더적 남성성의 존재 문제
- IV. 〈최진후 설화〉에 나타난 마고여신 살해와 유교적 남성성 획득의 이니시에이션
- V.나오는 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설화의 젠더적(gender) 남성성 탄생과정을 규명해 보고자 했다. 남성성이 지배적 관념의 위상을 차지하게 된 부계제가 모계제를 대체하여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젠더적 남성성의 탄생을 여성성과의 상대적 관계성 속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여성성이 지배적 관념성의 주체성과 등치되던 모계제 시대에도 존재했었던 생물학적 남성성이 어떻게 여성성을 종속화 시켜서 군림하는 사회적 지배관념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가의 문제가 된다. 일단, 생물학적·젠더적 여성성에 대응되는 생물학적·젠더적 남성성의

* 본 논문은 제85차 한국구비문학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었음.

** 세명대학교 미디어한국어문학과 조교수

층위는 생물학적 남성성으로 부성과 육체성·호전성, 젠더적 남성성으로 지배성·주체성을 정리해 볼 수 있다. 특히, 후자의 젠더적 남성성은 젠더화 된 결과가 남성중심적 사회이념 체계의 종속적인 객체성으로 나타나는 여성성과는 정반대의 경우에 위치한다.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발휘되는 것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여성을 지배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역설적으로 생물학적 여성성을 젠더 속에서 발현시켜서 젠더적 여성성으로 만들어주는 남성적 상관물이 된다.

젠더적 남성성의 탄생기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여성성이 젠더적 남성성과의 관계 속에서 젠더화 되는 특정한 대상 자료가 요구된다. 본 연구가 모성·생산성의 생물학적 여성성의 대명사인 주인공인 마고여신을 살해하고 젠더적 남성성을 획득한 강원도의 실존인물 최진후(崔鎭厚)에 관한 설화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마고는 여신의 고유명사이자 전국적으로 산재한 여성신의 일반명사이기도 하다.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변주되기도 하지만 이들은 천지를 창조하고 자연지물을 탄생시키며 생명과 풍요를 주관하는 마고여신이 각 지역마다 특수하게 변주된 지역적 변이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원도의 마고여신을 살해하고 지배적 남성성을 관념적으로 보편화 시킨 유교적 교화를 강원도 지역에 구축한 최진후는 전국에서 마고여신을 살해하고 젠더적 남성성을 획득한 남성신으로 보편화 시켜서 치환할 수 있는 인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대상 텍스트들 속에서 최진후는 남성성이 특별히 부각되지 않는 인물에서 젠더적 남성성을 폭발적으로 과시하는 남성으로 재탄생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최진후의 젠더적 남성으로의 재탄생은 모계제 사회의 대모신인 마고여신의 생물학적 살해와 젠더적 재배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마고여신 살해를 통한 여신의 생물학적 여성성을 젠더적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은 최진후란 남성이 젠더적 남성으로 확고히 재탄생되는 통과제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최진후를 젠더적 남성으로 탄생시키는 사회문화적 기제는 오늘날의 17세기 전후 시기 강릉·삼척 일대에 구축되어 가던 사족세력의 유교적 교화를 확장이란 지배관념의 역사적 지평과도 맥락이 닿는다. 유교란 이데올로기가 17세기 이후의 조선사회를 지배한 관념이라고 할 때, 유교적 관념체계 구축에 앞장 선 최진후의 젠더적 남성성 획득은 곧 전 지역을 아우르는 지배적 관념성으로서의 남성성 구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강원도 지역설화인 <최진후설화>를 통해서 확인해본 여신살해와 젠더적 남성성의 탄생기제의 각 지역별 확인은 다음의 후속 과제가 된다.

주제어 : 남성성, 젠더, 유교적 남성성, 젠더적 남성성, 여신살해, 마고여신

I. 문제설정의 방향

한국설화 연구사에서 남성성(男性性, manhood)은 마이너리티(minority)의 영역에 속한다. 현실세계에서는 남성성이 메이저리티(majority)를 차지하고 있지만 연구사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설화의 성별적(性別的, sexual) 정체성(identity) 연구가 집중되어 있었던 것은 여성성(女性性, womanhood) 쪽이다. 현실세계에서 마이너의 영역에 위치해 있는 여성의 위치가 연구의 필요성을 야기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위상의 마이너함을 알리는 동시에 제고·교정에 대한 필요성 확산 시키는 것이 사회적 정의(rightness)를 구성한다는 암묵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여성성에 대한 연구 집중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역차별로 보일 수 있겠지만, 여성성이나 민중성 같은 소수자성이 독자적인 연구범주를 할당받아 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이 부분이 남성성 연구를 시작하기에 곤란한 지점이 된다. 남성성이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어왔다는 사실은 차별적인 성별적 정체성에 대한 탐색을 요하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굳이 남성성을 특별히 독립된 연구의 영역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남성성이 사회정치적·역사적으로 보편화 시켜온 지배적인 관념체계 속에 그것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남성성이란 곧 사회적 지배관념을 형성·유지시키는 주체성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사회적 구성요소나 현상을 대상화 하고 야기시키는 지배적인 관념체계와 인식의 맥락을 규명하는 것이 곧 남성성에 대한 탐색과 등치 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지배관념이란 남성이 만들고 유지해온 관념을 보편화시킨 사회적 물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지배관념이란 것은 관념적 남성성(ideological manhood)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설화의 여성성 연구사가 남성과의 상관성 속에서 상대적으로 여성성을 규명해온 것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여성성을 연구하는 가운데 남성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된다. 요컨대, 한국설화에 나타난 여성의 모성이나 종속성 논의를 남성의 부성·지배성과의 상대성 속에서 진행해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남성성에 대한 연구는 거꾸로 기존 연구사 속에서 축적되어온 여성성과의 상대적 관계성 속에서 진행될 수 있다. 예컨대, 가능한 영역은 남성성의 유형·체제, 여성성과의 차이, 남성성의 탄생과정 등이다. 이 중에서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마지막의 남성성 탄생과정이다. 인간의 사회체제가 모계제에서 부계제로 이행되었다는 상식을 전제로 할 때, 부계제 사회 이후 본격적으로 구축된 남성성과의 상대적인 관계성 속에서 여성성을 규명해내는 것이 기존 연구사의 주된 작업이었다면, 본 연구는 거꾸로 그렇게 규명된 여성성이 지배하던 모계제 시대에서 남성성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를 여성성과의 상대적인 관계성 속에서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지배권을 탈취하여 지배적인 남성성을 구축하는 젠더적(gender) 남성성의 탄생과정과 경로가 된다.

젠더적 남성성의 탄생기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여성성이 젠더적 남성성과의 관계 속에서 젠더화 되는 특정한 대상 자료가 요구된다. 본 연구가 모성·생산성의 생물학적 여성성의 대명사인 주인공인 마고여신을 살해하고 젠더적 남성성을 획득한 강원도의 실존인물 최진후(崔鎭厚)에 관한 설화¹⁾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마고는

1) 최진후란 인물명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강진옥의 「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한국민속학』, 한국민속학회, 1993)이 처음이다. 토착신앙과 유교이념의 대

여신의 고유명사이자 전국적으로 산재한 여성신의 일반명사이기도 하다.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변주되기도 하지만 이들은 천지를 창조하고 자연지물을 탄생시키며 생명과 풍요를 주관하는 마고여신이 각 지역마다 특수하게 변주된 지역적 변이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²⁾ 따라서 강원도의 마고여신을 살해하고 지배적 남성성을 관념적으로 보편화 시킨 유교적 교화를 강원도 지역에 구축한 최진후는 전국에서 마고여신을 살해하고 젠더적 남성성을 획득한 남성신으로 보편화 시켜서 치환할 수 있는 인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대상 텍스트들 속에서 최진후는 남성성이 특별히 부각되지 않는 인물에서 젠더적 남성성을 폭발적으로 과시하는 남성으로 재탄생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최진후의 젠더적 남성으로의 재탄생은 모계제 사회의 대모신인 마고여신의 생물학적 살해와 젠더적 재배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마고여신 살해를 통한 여신의 생물학적 여성성을 젠더적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은 최진후란 남성이 젠더적 남성으로 확고히 재탄생되는 통과제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최진후를 젠더적 남성으로 탄생시키는 사회문화적 기제는 오늘날의 17세기 전후 시기 강릉·삼척 일대에 구축되어 가던 사족세력의 유교적 교화의 확장이란 지배관념의 역사적 지평과도 맥락이 닿는다. <최진후설화>에서 생물학적 남성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본 뒤에 젠더적 남성성이 마고여신 살해를 통해 확립되는 서사적·사회문화적 통과제의의 양상과 의미에 관한 고찰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강원

결과과정에서 마고할미가 효열인물인 최진후에 의해서 패배한 <마고할미 설화>의 일부 각편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시각은 후속연구(이승철, 『동해 북평지역 <마고할미>설화의 시대적 변이양상 고찰』, 『강원민속학』14, 강원민속학회, 2003.)에까지 변함없이 계승되고 있다.

2) 마고여신의 지역적 분포와 변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진행 중이다.

도 지역설화인 <최진후설화>를 통해본 젠더적 남성성의 탄생기제가 된다.

II. 한국설화의 여성성 분류에 대한 재검토와 젠더적 남성성의 체계

논의의 편의를 위해 기존 연구사에서 진행된 여성성 분류체계에 대한 재검토로부터 출발해야겠다. 선행연구사는 초기의 양성 공존론³⁾에서 여성성의 존재양상 및 의미 분석론으로 이행되었다. 이들 선행연구사에서 제시되어온 여성성의 예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예시1] ①모성⁴⁾

②생산성⁵⁾

③동·식물성⁶⁾

3) 김재용, 「동북아 창조신화와 양성원리」, 『구비문학연구』12, 한국구비문학학회, 2001

4) 김대숙, 「삼국유사 설화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삼국유사 설화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어문집』15, 2001.; 최원오, 「모성(母性)의 문화에 대한 신화적 담론: 모성의 기원과 원형」,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최은숙, 「삼국유사」에 나타난 모성의 존재 양상과 특성 『삼국유사』에 나타난 모성의 존재 양상과 특성, 『동방학』27, 2013.

5) 최원오, 「한국 신화에 나타난 여신의 위계 轉變과 윤리의 문제」, 『비교민속학』24, 비교민속학회, 2003.; 최원오, 「곡물 및 농경 관련 신화에 나타난 성적 우위의 양상과 그 의미 곡물 및 농경 관련 신화에 나타난 성적 우위의 양상과 그 의미」, 2006: 「주몽 신화」, <세경본풀이>, <목도령형 홍수신화>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2006, 한중인문학회, 2006.

6) 이종주, 「동북아시아 성도 유화」, 『구비문학연구』4,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 조현설, 「웅녀.유화 신화의 행방과 사회적 차별의 체계」, 『구비문학연구』9, 한국구비문학학회, 1999.; 최원오, 「동아시아 알타이어계 민족의 민족기원신화에 나타난 특징 연구」, 『구비문학연구』11, 한국구비문학학회, 2000.; 최원오, 「한국 신화에 나타난 여신의 위계 轉

상기 여성성의 요소들은 생득적인 것이다. 선천적·자연적·신체적으로 타고난 속성이 된다. 선행연구사에서는 여성성으로 적극적으로 규정되지 못했지만, 여기에 후천적·사회적·문화적인 요소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종속성·하위성이 바로 이것에 해당된다. 사회적 이념체계에 의해 전자의 모성성, 생산성, 동·식물성은 종속적·하위적인 것으로 재배치되어 후천적 여성성으로서의 종속성·하위성을 부여받게 된다. 원래는 절대적인 주체성과 완전성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 정체성이 특정 이념 체계에 의해 상대적인 결핍성을 지닌 것으로 재규정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여성성을 재규정하는 기준점은 널리 인정되듯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나 유교관념이 된다.

선행연구사에서 쟁점으로 거론되었던 것은 위계의 전변이나 차별적 체계 적용이 동·식물성 같은 생물학적 여성성의 일부 요소들과 등가의 것⁷⁾인가, 아닌가⁸⁾다. 그런데 전자로 보게 되면 모성·생산성처럼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 체계에 종속적으로는 존재해도 하위적인 것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여성성의 요소들을 일괄적으로 설명해 낼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후자로 보게 되면 종속성·하위성이 모성·생산성·동물성·식물성 등과 동일한 층위로 분류될 수 없는 요소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종속성·하위성과 같은 여성성의 요소들은 모성·생산성·동물성·식물성 등과 별개의 층위에 위치한다. 사회문화적 기제에 의해 후천적으로 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생물학적 층위의 섹슈얼리티(sexuality)가 아니라

變과 윤리의 문제』, 『비교민속학』24, 비교민속학회, 2003.

7) 이렇게 보는 대표적인 견해가 바로 조현설의 『웅녀·유화 신화의 행방과 사회적 차별의 체계』, 『구비문학연구』9, 한국구비문학학회, 1999에 제시되어 있다.

8) 여기에 해당되는 선행연구가 바로 최원오, 『한국 신화에 나타난 여성의 위계 轉變과 윤리의 문제』, 『비교민속학』24, 비교민속학회, 2003이다.

젠더(gender)로 규정될 수 있다. 즉, 자연적으로 정해진 여성성을 사회문화적으로 재구성한 여성 정체성이라는 것이다. 반면, 모성·생산성·동물성·식물성 등의 요소들은 생물학적 층위의 여성 정체성이다. 따라서 이질적 층위에 속하는 요소들의 혼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지배이념이 모름지기 여성이라면 이러해야 한다는 특정한 믿음에 의해 부과한 사회문화적 젠더를 여성성의 범주 속에 수용하되, 생물학적 여성 정체성과 별개의 층위에 위치시키는 체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

[예시2] ①생물학적 여성성

㉠모성

㉡생산성

㉢동물·식물성

②젠더적 여성성:종속성·하위성

여성성 범주와 층위 규정에서 남은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동물성과 식물성이 차별적인 여성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맞는가 하는 것이다. [예시2]-①-㉠의 모성은 가임성과 관련된 정체성이란 점에서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 정체성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포용성, 이해심, 이타성, 관계지향성, 정서지향성 등으로 변주되는 속성들이 이 모성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예시2]-①-㉡의 생산성은 개인적 차원의 모성이 지구적·환경적 차원으로 확장된 속성이라는 점에서 원래 여성성에 해당하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모계제에서 부계제로 이동함에 따라 생산성의 주도적 주체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이동했다 하더라도 해당 기원이 여성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생산성에 대한 설화적 상상력을 가임의 모성을 자연환경의 차

원에 대응시킨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예시2]-①-㉔의 동·식물성이다. 설화 텍스트 속에서 동·식물성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서도 나타난다. 생산성의 경우처럼 부계제의 도래에 따라 여성에서 남성에게로 확산된 속성이라고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애초 신성권능의 상징이었을 동·식물성은 부계제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젠더화 되어 하위의 여성성을 표상하는 지표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남성에게서도 확인되는 동·식물성이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속성·하위성의 상징지표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여성적 젠더에만 국한되는 특수성이 아닌란 얘기가 된다. 이미 남성중심의 지배이념이 작동하고 있는 부계제 사회 하에서 굳이 남성성을 열위의 차원에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무수한 여우설화의 각편들 속에서 동물성을 지닌 여우신랑은 여우각시와 마찬가지로 악신으로 규정되어 퇴치된다. 아래자설화 유형에 등장하는 지룡들이나 지하국대적 퇴치설화 유형에 등장하는 금돼지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본다면 동·식물성은 여성에만 국한되는 차별적 정체성이 아니라 여·남성에 모두 적용되는 신성의 보편성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예시2]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고쳐질 수 있다.

[예시3] ①생물학적 여성성

㉔모성

㉔생산성

②젠더적 여성성:종속성·하위성

㉔종속성·하위성

㉔마성(魔性)·악성(惡性)

이렇게 여성성의 층위를 체계화 놓게 되면 모성·생산성·동물성·식물

성과 종속성·하위성의 상호관계가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게 된다. ①의 생물학적 여성성의 요소들이 텍스트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②의 젠더적 여성성으로 구현되어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한국설화의 여성성 층위 문제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고려해보아야 하는 것은 생물학적 여성성을 부정화(不淨化)한 마성·악성 등의 여성성 항목의 추가 문제이다. 마성·악성은 신성 여성성을 남성 중심적인 관념체계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로 규정하여 배제(排除)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정화·마성화·악성화이다. 생물학적으로는 신성하지만 남성 중심적인 젠더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재규정(redetermination) 된 여성성이 된다. [예시3]-②-㉑의 종속화·하위화가 생물학적 여성성을 남성 중심적인 관념체제 내부에 재위치(repositioning) 시켜서 포섭하기 위한 젠더화라면, [예시3]-②-㉒의 부정화·악성화는 남성 중심으로 재편된 관념체제 밖을 여성성을 배제하기 위한 젠더화가 된다. 둘은 상호 역방향으로 작용하는 젠더화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젠더적 여성성을 규정짓는 이념기준이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란 사실에 새삼 주목할 거리가 놓여 있다. 여성성의 요소들 대부분이 기실 남성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발현된다는 사실은 거꾸로, 생물학적 여성성을 젠더적 여성성이란 필터를 통해 부각시키는 남성성의 정체에 대한 의문을 촉발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성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한국설화 속에 나타난 남성성을 조명해볼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생물학적 여성성을 젠더 속에서 발현시켜주는 상관물인 남성성이 생물학적인 차원의 것인가 아니면 젠더적인 차원의 것인가 하는 사실이다. 일단, 생물학적·젠더적 여성성에 대응되는 생물학적·젠더적 남성성의 층위가 각각 설정될

수 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시3] ①생물학적 남성성

㉠부성

㉡육체성 · 호전성

②젠더적 남성성: 지배성 · 주체성

[예시3]-①-㉠부성은 모성의 여성성에 대응되는 것이다. 남성의 유전형질을 전승하고 유지하는데 발휘되는 모든 생물학적인 남성성을 포괄하는 속성이 된다. 생명을 직접적으로 잉태하고 키워내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생산의 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남성의 활동들을 가리킨다. [예시3]-①-㉡의 육체성 · 호전성은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더 발산지향적인 신체적 힘과 그로 인한 전투성을 지칭한다. 여성이 지닌 가임의 생산성에 대응되는 물리적인 힘과 기술의 생산성으로 확산될 수 있으나, 부정적으로 발현되면 파괴를 야기하는 전투성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육체성과 호전성은 모두 남성 특유의 상대적으로 강한 신체적 힘을 기반으로 하지만 발현되는 양상은 상반되는 속성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국설화의 남성성과 관련된 세부 아젠다로 두 가지가 제시될 수 있다. 하나는 생물학적 남성성의 양상이고, 다른 하나는 생물학적 여성성과의 차별성이다.

한편, [예시3]-②의 젠더적 남성성은 ①의 속성을 여성에게 군림하기 위해 만들어낸 남성중심적 지배이념에 의해서 정당한 것으로 규정되는 속성이다. 자연발생적이지 않고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면서도 남성중심적으로 축조된 사회문화적 지배이념 체계에 의해 주체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젠더화 된 결과가 남성중심적 사회이념 체계의 종속적인 객체성으로 나타나는 여성성과는 정반대의 경우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여성

을 대상으로 발휘되는 것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여성을 지배하고 폭력을 행사한다. 이 점에서 역설적으로 생물학적 여성성을 젠더 속에서 발현 시켜서 젠더적 여성성으로 만들어주는 남성적 상관물은 [예시3]-②의 젠더적 남성성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한국설화의 남성성과 관련된 남성성에 관한 세부 아젠다 항목을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젠더적 남성성의 양상, 젠더적 여성성과의 차별성에 대한 항목 설정방식은 생물학적 남성성의 경우와 같다. 추가되어야 할 항목은 주체적·완결적인 생물학적 여성성을 젠더적 여성성화 시켜서 생물학적 남성성을 주도적·지배적으로 재편하여 젠더적 남성성화 시키는 기제에 대한 고찰이다.

한국설화의 남성성에 관해 연구될 수 있는 아젠다의 층위는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 [예시4] ①생물학적 남성성의 양상
 ②생물학적 남성성과 생물학적 여성성과의 차이
 ③젠더적 남성성의 양상
 ④젠더적 남성성과 젠더적 여성성과의 차별성
 ⑤젠더적 남성성의 형성기제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항목은 [예시4]-⑤의 젠더적 남성성 형성기제이다. [예시4]-①~④에 대한 고찰을 먼저 진행하고 그 전제하에서 [예시4]-⑤의 젠더적 남성성 형성기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Ⅲ. <최진후(崔鎭厚) 설화>의 계열분류와 젠더적 남성성의 존재 문제

최진후(崔鎭厚, 1630~?)는 선조36년인 1603년에 출생하여 졸년(卒年)은 확실치 않으나 적어도 63년 이상을 살았던 실존인물이다. 본관(本官)은 강릉(江陵)이고, 참봉(參奉) 최원준(崔元俊)의 아들이다. 아명은 진우(鎭宇), 호는 취병(翠屏), 자는 통만(統萬)이다. 오늘날 강릉·삼척·동해시를 아우르는 지역의 대표적인 효열(孝烈) 인물로 지금까지 칭송받고 있다. 홍양해(洪洋海)·김겸(金謙) 등과 함께 북평삼효자(北坪三孝子)로 일컬어진다. 이들은 나란히 선조조에서 효종조에 걸쳐 산 인물들로, 부모가 연달아 죽고 난 후 6년 시묘살이를 하고 지극한 효성에 부응한 이적(異蹟)의 경험을 한 끝에 한 끝에 효자각(孝子閣)을 제수 받고 삼척부사(三陟府使) 허목(許穆)의 제향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⁹⁾

이 최진후에 관한 효열설화는 삼척 일대의 대표적인 지역인물설화로 꼽히는데, 학계에서 언급된 부분은 <마고할미 설화>의 일부 이본으로서만이다. 대상 자료로 주로 거론 된 것은 마고할미를 주인공으로 놓고 최진후가 주변인물로 등장하는 텍스트들이다.

그런데 현재 찾을 수 있는 최진후에 관한 설화 자료들을 가능한 모두 수합해 놓고 보면 절반 이상이 최진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텍스트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여기서 최진후가 주인공인 자료라 함은 텍스트의 시작

9) 『眞珠誌』, 지적박물관 소장, 1916, 『增補 眞珠誌』, 崔晚熙 編, 三陟郡儒道會, 1963.; 『三陟郡誌』, 沈宜昇 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 1916, 『증보 三陟郡誌』, 삼척군, 1985.; 『東海村史記』, 전국문화원문헌총람, 동해문화원편, 서울:문화체육부, 1997, p.76.; 『동해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동해문화원·관동대박물관 공동지표조사보고서, 관동대학교 박물관, 1996.

에서부터 끝까지 서사를 통어하는 중심인물이 되고 마고할미가 보조인물로 등장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 지점에서 일단 최진후란 남성인물을 마고할미의 보조인물이 아니라 서사주체로 놓는 <최진후 설화> 범주의 설정이 가능해진다. 현실세계의 주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연구사에서는 오히려 여신들의 여성성 논의에 밀려 마이너리티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었던 남성을 여신설화 텍스트로부터 건져 올리기가 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최진후 관련 설화 자료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1]

- (01) <최진후설화(편의상 제목)>, 『陟州誌』上, 2권1책, 許穆 編纂, 東海市 松亭洞恒吉宅 宗孫 金南容氏 藏本, 1662, 『完譯 陟州集』, 삼척시, 1997.
- (02) <최진후설화(편의상 제목)>, 『陟州誌』下, 2권1책, 許穆 編纂, 東海市 松亭洞恒吉宅 宗孫 金南容氏 藏本, 1662, 『完譯 陟州集』, 삼척시, 1997.
- (03) <최진후설화(편의상 제목)>, 『陟州節義錄』, 金九燾 著, 東海市 松亭洞恒吉宅 宗孫 金南容氏 藏本, 1798~1859, 『完譯 陟州集』, 삼척시, 1997.
- (04) <최진후설화(편의상 제목)>, 『眞珠誌』, 沈宜昇, 1916, 『增補 眞珠誌』, 崔晩熙 編, 三陟郡儒道會, 1963.
- (05) <서구암과 할미바위>, 『江原道誌』, 1940, 『增補 江原道誌』, 江原道誌刊行所 編, 江原道誌刊行所, 1941, 『完譯 江原道誌』, 최승순 외 번역, 강원도지 편찬위원회, 2008.
- (06) <瑞姬岩>, 『향토의 전설』, 강원도, 1979, 491-493쪽.
- (07) <마고할미전설(2)>, 『한국구비문학대계』2-3, 243-244쪽, 1980.
- (08) <마귀할귀>, 『한국구비문학대계』2-3, 297-298쪽, 1980.
- (09) <서구암과 최진후>, 『한국구비문학대계』2-3, 730-732쪽, 1980.

- (10) <마고할미>, 『한국구비문학대계』2-3, 11쪽, 1980.
- (11) <서구암>, 『삼척군지』, 삼척군지편찬위원회, 1985, 66쪽.
- (12) <축원하면 병상부모에 영약>, 『태백의 효열』, 강원일보사, 1986.
- (13) <서구암>, 『삼척군지』, 삼척군지편찬위원회, 1985, 347-348쪽.
- (14) <여우가 변한 서구암>, 『동해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동해문화원 ·
 관동대학교 박물관, 1996.04.03.¹⁰⁾
- (15) <여우가 변한 서구암>, 『동해시 지역의 설화』, 구연자:김시래(남, 72
 세), 구연장소:발한동, 동해시, 2000.12.05.¹¹⁾
- (16) <최진후설화>(편의상 제목), 구연자:최진환(82세), 채록자:이승철, 채
 록지: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채록날짜:2001.10.31.¹²⁾
- (17) <최진후설화>(편의상 제목), 구연자:김시래, 채록자:이승철, 채록지:
 동해시 발한동, 채록날짜:2001.11.13.¹³⁾

이들 텍스트들은 마고할미의 등장여부에 따라 두 계열로 분류된다. 즉, 최진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되 마고할미가 등장하지 않는 계열과 최진후와 마고할미가 모두 등장하는 계열이다. 전자는 최진후의 효열 사적에 대한 신성화와 찬양을 서사적 지향점으로 하는 계열이 된다. 최진후의 효열 이적(孝烈異蹟)으로부터 서사가 시작되어서 주자가례(朱子家禮) 전과, 효열각(孝烈閣)·효자문(孝子門) 제수 등의 에피소드로 마무리 된다. 후자

10) 강진옥은 이 <여우가 변한 서구암> 텍스트가 『동해의 뿌리』, 12쪽에 기재되어 있다고 했으나(강진옥, 『「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한국민속학회, 1993, p.8.), 조사해 본 결과 『동해의 뿌리』란 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동해문화원·관동대박물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공동지표조사보고서를 관동대학교 박물관에서 1996년에 펴낸 『동해시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이 텍스트가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11) 각주 11)의 내용과 상동.

12) 이승철, 『동해 북평지역 <마고할미>설화의 시대적 변이양상 고찰』, 『강원민속학』14, 강원민속학회, 2003.

13) 이승철, 위의 논문.

가 문제인데, 이 카테고리의 서사적 지향점은 단일하지 않다. 일단, 하나는 최진후의 효열사적에 대한 신성화·찬양을 목적으로 하는 서사 속에 마고할미가 대상으로 편입되어 있는 계열이다. 효열이적에서 효열각·효자문 제수로 종결되는 최진후 효열서사가 시작과 대단원을 이룬다. 다른 하나는 마고할미를 주인공으로 하기 때문에 최진후의 효열이적으로부터 서사가 시작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열각·효자문 제수, 주자가례 전파 등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 최진후를 마고할미로의 부정적인 젠더화를 위한 매개인물로 삼고 있는 계열로, 이 전이의 과정 속에서 오히려 마고할미가 마고여신으로서 지니고 있었던 생물학적인 여성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된다.

일단, [자료1]에서 제시했던 <최진후 설화> 자료들을 세 계열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1'] ①마고할미 비등장-최진후 주인공 계열:(01), (02)

②마고할미 등장 계열

②마고할미 등장-최진후 주인공 계열:(03), (04), (06), (08),
(12), (16), (17)

④마고할미 등장-최진후 非주인공 계열:(05), (07), (09),
(10), (11), (13), (14), (15)

지금까지 <마고할미 설화>의 일부 자료로서 거론되어 온 것은 [자료1']-②-④ 계열이다. 서사의 초점이 마고할미에게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마고할미 설화>로 최종 귀속시켜야 할 것 같은데, 초점화 방식이 주체화가 아니라 부정적인 대상화와 객체화라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 최진후의 효열 사적에 대한 신이성 부각과 찬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마고할미를 대상화 하는 상호관계에서는 상대적인 주체성을 보유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거리다. 환경세계를 구성하는 지배관념이 최진후에게 투영되어 있으며, 이 최진후를 매개로 하는 지배이데올로기가 마고할미를 부정적인 대상으로 젠더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고할미가 주인공이면서도 유교중심의 지배이념에 대한 부정적인 객체로 젠더화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료1']-②-㉔ 계열에서 최진후는 마고할미를 남성중심의 유교관념에 따라 젠더화 시키는 매개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진후가 등장하되 마고할미가 주인공이 되는 [자료1']-②-㉔ 계열은 <최진후 설화>와 <마고할미 설화>의 공유 지대가 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 계열부터는 <마고할미 설화>로 넘어가게 된다. 서사적 지향점이 남성성이 아니라 여성성의 젠더화에 서사적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최진후가 아예 서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게 되면 마고할미를 대상화 하는 상대적인 주체의 시선도 동원되지 않게 된다. 당연히 마고할미는 부정적인 대상이나 객체가 아니라 자기 완결적이고 독자적인 신성주체가 된다. 이처럼 마고할미가 주체적인 여신으로 등장하는 텍스트들은 마고여신의 생물학적 여성성이 주체적으로 구현된 계열이 된다. 이 생물학적 여성성이 마고할미의 젠더적 여성성으로 전이되게 되면 최진후를 매개로 한 [자료1']-②-㉔의 계열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면 [자료1']-②-㉔ 계열에서 마고여신의 생물학적 여성성을 마고할미의 젠더적 여성성으로 전변시키는 매개체가 바로 최진후의 젠더적 남성성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자료2] ① ㉔취병산 아래 쪽에 있는 설운동에 가면 서구암이라는 바위가 있어. 상서 서(瑞) 자, 늙은 할미 구(嫗) 자, 서구암이 있는데, 그 유래는 이렇게 전해 내려오지. 옛날에 백월산 밑에 노파로 변신한 여우가 살았는데, ㉔이 노파가 매우 도통하여 십 리 밖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 맞추고 사람의 길흉화복도 다 알아 맞추었다. 이러니 그 소문이 여러 마을에

퍼져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

㉔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인데도 재물을 가져와 바치면서 운수를 봐달라고 그 집 앞에서 문전성시를 이루니 마을의 풍조가 참 좋지 않게 흐르거던. 뿐더러 그 노파는 ㉕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의 자손은 마마를 걸리게 하고 ㉖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재앙을 내리게 하니 두려워서 감히 거역을 못했대.

㉗그러자 이 동네에 사는 최진후라는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니 ㉘자기가 보기에는 그 노파가 비록 운수는 잘 맞춘다 하더라도 몽매하고 가난한 사람을 혹세무민(惑世誣民) 한단 말이야. 그래 관가에 가서 응징하도록 고발하였지만 관가에서는 오히려, “그 여자 말이 사실이니 우린들 어찌겠느냐?” 하면서 들은 척을 하지 않더라. 그러니 그 사람이 ‘사람의 능력으로 어찌 저렇게 모든 걸 알 수가 있겠느냐? 저건 틀림없이 요물임이 분명한데 관에서는 저걸 처치하려 하지 않으니 나 혼자서라도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㉙몽둥이를 들고 가서 그 노파를 때려 죽였대. 그리고 ㉚이 노파의 도술이 원체 신통하니까 다시 살아날까 두려워 쪽으로 머리를 300여 군데나 뜸을 떠 다시는 회생하지 못하게 했다. 이 노파가 죽으면서 옆에 있는 바위를 쥐어뜯었는데 지금도 할멈의 손자국이 남아있어. 그래서 이 바위를 할미바위라고도 하고 서구암이라고도 불렀대.¹⁴⁾

㉛㉜서구암은 북평 취병산(翠屏山) 서편 백월산(白月山) 밑에 있는 바위이다. ㉝이 바위는 서구라는 여우의 화신인 노파가 죽어 변화였다는 전설로 서구의 손자국 흔적이 남아있다. 서구는 천년 묵은 여우의 화신으로 신통력과 괴력을 가지고 있었다.

㉞ ㉟인근 주민들이 자기에게 거슬리면 심통을 부려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또 ㊱질병을 퍼뜨려 주민을 괴롭혔다. 특히 어린 아이에게 천연두를 퍼뜨려 죽게 하므로 주민들은 서구를 무척 두려워하였다. 서구의 장난이 무서워 ㊲이

14) <여우가 변한 서구암>, 『동해시 지역의 설화』, 구연자:김시래(남, 72세), 구연장소:발한동, 동해시, 2000.12.05.

곳을 지나갈 때 수십명의 무리를 지어 소(牛)와 재물을 바치고 지나갔다.

㉔이처럼 ㉑서구의 작폐로 인근 주민이 불안과 공포에 전전긍긍 하고 있던 차 이곳 출신의 소문난 효자 최진후와 힘센 역사(力士) 김면(金眠)이 서구의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구하기로 하고 합심하여 ㉒서구와 싸워 ㉓서구 머리를 쪽으로 뜸을 100여 곳에 놓자 서구는 3일간 정신을 잃고 있다가 죽어갔다.¹⁵⁾

[자료3] ①옛날에 노고가 산천을 전부 만들었는데, 손이 크고 힘이 좋아서 평평한데 죽죽 그으면 산이 되고 골이 되고 인물이 난다. 위가 평평해서 담배대 위에다 왼손으로 바위를 들어올려 얹어놓았는데 그게 할미바위이고, 그 아래 평평한 너른 바위가 있는데 그곳에서 노고할미가 살았다고 전해온다.¹⁶⁾

②강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바위 위에 올라가면 소 발자국 사람발자국이 나 있는데 이것은 마고할미가 밟아서 생긴 것이라 한다. 아들 없는 부부가 기도했더니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¹⁷⁾

③허허허 마고할미 얘기하면 그저 막연하게 들은 거지, 오늘날 내려온 거 보면 그게 아이요, 영등에는 마고할미가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데 마고할미이라는 게 형식으로 보이는 머인지 신인지 모르겠으나, 그냥 들은 얘기 별로 없는데, 보편은 굴은 저 너레방석 같은 걸 보면 이런 발자욱들이 있어요, 거 보면 마고할미 발자욱이다. 뭐 이런 얘기 정도 듣고 있다. 그 발자욱은 돌췌에 있답니다. 넓적한 바위에 가면 어딘지 잘 몰라도 마고할미이다 하는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등 때가 되면 농촌에 보면 저 뭐야 팔고물 떡을 하고 이래 가지고 마고할미 위한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노곡서도 하지요, 이월

15) <여우가 변한 서구암>, 『동해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동해문화원·관동대학교 박물관, 1996.04.03.

16) <노고할미바위 이야기>, 『한국구비문학대계』2-1, 명주군 옥계면 남양2리 간촌, 1979, pp.568-569.

17) <삼척시 상반천리의 암소바위(마고할미바위)>, 『아들 낳은 이야기-강원도편』, 구연자:김무갑(남, 60세), 채록장소:삼척시 상반천리, 이학주 편, 민속원, 2004, pp.62-64.

영등에는 마고할마이가 올라가는데 빈다고 이래미 그런 게 있어요. 농촌엔 그거 해요.¹⁸⁾

④3일간의 치열한 전투로 왜병과 우리의 의병이 죽어 붉은 피가 비린내골(피내골)을 덮었으며, 파소에 흘러내린 피줄기는 오랫동안 파소를 맴돌았다 하여 파소, 피소라 이름하고 또 화살이 강을 메웠다 하여 전천이라 이름하였다 한다.¹⁹⁾

우선 [자료2]-①·②는 [자료1']-②-④ 계열에 속하는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마고여신의 생물학적 여성성-㉡부정적으로 젠더화된 여성성-㉢최진후의 생물학적·젠더적 남성성에 의한 마고할미 살해의 구조로 서사가 구성되어 있다. [자료2]-①·②-㉠에 제시되어 있는 마고할미의 아이덴티티는 부정적으로 젠더화 되기 전의 마고여신이 지니고 있었던 [자료3]의 생물학적 여성성에 대응된다. [자료2]-①-㉠-㉡에서는 마을주민들의 일상사와 길흉화복을 주관하던 마을수호신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타자를 보살피는 모성의 생물학적 여성성이 확장된 것으로 [자료3]-④에서 젠더화 되기 전의 원형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2]-②-㉠-㉡에서 마고할미의 신통력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바위는 바로 [자료3]-①·②·③에 나타난 생산성의 생물학적 여성성을 입증하는 증거물 바위다. [자료2]-②-㉠-㉡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바위는 [자료3]-①·②·③에서 각각 산천·인간·곡물을 생산하던 직능

18) 구연자:운달원(남, 76), 채록장소:삼척시 정라동, 채록날짜:1995.12.18., 이승철, 이승철, 『동해 북평지역 <마고할미>설화의 시대적 변이양상 고찰』, 『강원민속학』14, 강원민속학회, 2003, p.291.

19) <동해 두타산성과 파소>, 구연자:배선남, 채록장소:동해시 삼화동, 『동해 두타산성』, 동해문화원, 1997, pp.53-54.

수행의 남은 흔적이 드러나 있다. [자료3]-②에서는 마고여신이 직접적으로 생명을 탄생시키던 생산의 여성성이 바위를 매개로 감응되는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나 있고, [자료3]-③의 바위는 음력 2월에 하늘에서 내려와 1년 농사를 보살피고 다시 귀천하는 농경신의 생산성을 증명하는 증거물로 설명되고 있다. [자료3]-③에서 바위 위에 남아 있는 마고여신의 발자국이 농경제(農耕祭)인 영등제(靈登祭)²⁰⁾와 관련 있다고 한 것은 [자료3]-②에서 바위에 새겨진 발자국을 인간이 밟으면 임신을 하게 된다는 인간 생산의 원리를 농경 생산으로 전이시킨 신성관념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료3]-②·③의 인간·곡물 생산은 인간생활과 사회공동체를 유지·영속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모성의 여성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지점과 접점을 이루는 생산의 여성성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성·생산성의 여성성이 [자료2]-①·②-④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젠더화 된다. [자료2]-①-④-㉠·㉡과 [자료2]-②-④-㉠·㉡에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마을공동체에 해악을 퍼뜨리고 농경을 망쳐놓았다는 작해는 생명을 탄생시키던 생산성과 마을공동체를 돌보던 모성, 농경의 생산성이 부정적인 여성성으로 젠더화 된 이후의 인식적 결과물이다. 부정적인 여성성으로 젠더화 되기 전에는 소를 제물로 한 제향을 받던 신성한 여성성이었음을 [자료2]-②-④-㉢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부정적으로 젠더화 되어있던 마고여신의 여성성을 생물학적·젠더적 남성성을 동원하여 최종 해체시키는 인물이 바로 최진후다. [자료2]-①·②에서 최진후가 마고여신의 젠더화된 여성성을 해체시키기 위해 동원하는 남성성은 생물학적인 것에서 젠더적인 것으로 이행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일단, [자료2]-①-④-㉣을 보면 최진후가 마고여신을 살해한

20) 송석하, 『풍신고(風神考)』, 『진단학보』 1, 진단학회, 1934.

이유가 백성을 기망하는 원흉을 없애고자 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관에서도 마고여신의 생물학적 여성성이 지닌 권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사적으로 이를 흑세무민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마고여신의 생물학적인 여성성을 부정적인 젠더로 규정한 후에 살해하기 위해서 동원한 신체적 완력과 호전성은 표면적으로는 생물학적인 남성성에 국한된 것처럼 보인다. [자료2]-①-㉔-㉕에서는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자료2]-①-㉔-㉖에서는 머리에 쭈뼌을 300개나 떠서 죽이는 육체적인 완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효행과 관련한 실존인물 최진후의 행적이 일체 개입되지 않는다.

그런데 [자료2]-②로 가면 양상이 달라진다. [자료2]-①-㉔-㉗에서 면면이 유지되던 마고여신의 생물학적 여성성은 [자료2]-②-㉔-㉗으로 가면 최진후의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해 사회악으로 확실히 규정되며, 최진후는 사회공동체에 의해 이 사회악을 제거하기 위한 해결사로서 부름을 받는다. 이때 투입되는 맥락이 바로 [자료2]-②-㉔-㉗에서 확인되듯이 출천지효자(出天之孝子)로서 사회로부터 정려를 받았던 최진후의 효열 사적이다. 이처럼 마고여신의 생물학적 여성성을 부정적으로 규정하던 최진후가 일개인에서 효자가 되면 마고여신을 살해하는 결정적인 매개체는 생물학적 남성성이 아니라 유교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젠더적 남성성으로 전환되게 된다. 효자가 된 최진후가 발휘하는 생물학적 남성성에 몽둥이 찜질이 생략([자료2]-②-㉔-㉕)되고 쭈뼌([자료2]-②-㉔-㉖)만 언급되고 있는 바로 여기에 있다. 본래 쭈뼌은 막힌 기혈을 뚫는 치료적 기능을 지닌 것으로, 아무리 300개나 된다 해도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생물학적 남성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몽둥이 찜질 보다 강도가 월등히 낮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마고여신을 살해하는데 쭈뼌만으로 충분했다는 것은 최진후가 [자료2]-②에 와서 유교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젠더적

남성성을 지닌 인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란 사실을 역설적으로 입증한다. [자료2]-③·④에서는 아예 쑥뜸으로 죽지 않았던 마고여신이 최진후가 효자라는 이유로 죽여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교이념에 기반 한 최진후의 젠더적 남성성이 마고여신의 부정적으로 젠더화 된 여성성을 해체하는 매개체 교체의 중착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마고여신의 부정적인 젠더화와 신성 여성성 해체가 최진후라는 남성인물의 젠더적 남성성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과 의미가 될 것이다. 범박하게 마고여신의 부정화가 유교이념에 토착신앙이 패배한 결과²¹⁾라고 보고 말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유교의 지배관념이 마고여신을 살해하여 신성 여성성을 최종적으로 해체시키게 할 매개체로 하필 왜 최진후라는 남성인물의 젠더적 남성성을 선택했는지를 해명할 수가 없다. 유교란 지배이념과 관련된 최진후의 젠더적 남성성이 어떤 경로로 형성되었으며, 마고여신 살해가 그러한 최진후의 유교적 아니무스 획득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가 천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마고할미가 아니라 최진후를 주인공으로 한 명실상부한 <최진후 설화>를 고찰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다루어져야 할 <최진후 설화>의 자료가 바로 [자료1']-①의 마고할미 비등장-최진후 주인공 계열과 [자료1']-②의 마고할미 등장-최진후 주인공 계열이 된다.

21) 강진옥, 앞의 논문, p.28.; 이승철, 앞의 논문, pp.302-308.

IV. <최진후 설화>에 나타난 마고여신 살해와 유교적 남성성 탄생의 이니시에이션

실존인물 최진후의 사적에 가장 가까운 <최진후 설화>의 원형은 효열이적(孝烈異蹟) 계열이다. 이 계열에는 마고할미 살해담이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여성성과 차별화 되는 남성성의 지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효열이적 설화의 원형을 유지하는 속에 살고(殺姑) 화소를 삽입하고 있는 효열살고(孝烈殺姑)의 변이형 계열로 가게 되면 젠더적 남성성이 출현하게 된다. 유교적 가치체계인 효열만으로는 구현되지 않았던 젠더적 남성성이 마고여신 살해 행위를 통해 확고하게 획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거꾸로 말하자면 효열의 유교적 지배이념을 통한 마고여신 살해 과정이 최진후의 젠더적 남성성 획득을 위한 통과제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자료4] ①㉔처사 최진후는 효성이 지극했다. 모친이 병들었을 때 살아있는 꿩을 먹고 싶어했다. 공이 울면서 하늘에 기도하자 꿩이 뜰 안으로 날아들어왔고, 이것을 바치자 병이 곧 나았다. 훗날 아버지가 잉어회를 먹고 싶어 해서 또한 얼음을 두드리며 하늘에 기도하자 잉어가 밖으로 튀어나와 그것을 바치니 병이 곧 나았다. 후에 또 병이 심해져서 기절하자, 손가락 끊어 피를 내어 입안으로 흘려보내니 다시 소생하였다.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시자 묘에 여막을 치고 지냈다.

㉔인조 경진년(1640)에 이러한 일들이 알려져 정려를 세웠으며 여각은 두 연 위에 있다.²²⁾

②㉔豆淵, 부 서쪽 35리 도상면에 있다. 물줄기가 두타산에서 나와 백복령

22) <최진후설화(편의상 제목)>, 『陟州誌』上, 2권1책, 許穆 編纂, 東海市 松亭洞恒吉宅 宗孫 金南容氏 藏本, 1662, 『完譯 陟州集』, 삼척시, 1997.

아래로 흘러 薩川을 이룬다. 최진후가 어머니가 병들자 얼음을 깨니 잉어가
튀어나왔다 하여

㉞효자각을 세웠다.²³⁾

[자료5] ① ㉞효자 최진후의 어려서 이름은 鎭宇였으며 자는 統萬, 호는
翠屏으로 강릉 최씨 원준의 아들이다. 학문이 높았으며 신명을 감동케 한 효
자였다. 모친 병환에 잉어와 평을 구해 대접했으며 6년간 시묘살이를 했다.

㉞설운산 요귀할미의 민폐가 대단한데도 관가에서 막지 못하는 것을 끌어
내어 굴복시키고 머리를 뜸뎌서 닢을 잃고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

㉞가례문을 다시 발간하여 나누어주었다. 효종 경인년(1650) 효자문을 내
렸으며, 북평 3효자의 한 분으로 세상에서 칭하고, 진주처사라 불렸다. 삼척부
사 허목이 제사를 올렸으며 현종 갑신년(1844)에 모현사를 지어 모시려 했으
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²⁴⁾

② ㉞최공의 휘는 진후며, 자는 통만으로 강릉군 안치의 후손이다. 만년
계묘년(1603)에 홍월리에서 태어났다. 은거하며 의를 행해 몸소 밭을 갈며
힘써서 공부를 했다. 어머니가 병들자 효성으로써 하늘을 감동시켜 마당에
평이 던져지고 얼음이 깨져 잉어가 튀어나오는 감응이 있었다.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러 효과를 보기도 했다. 어머니 상을 당하여 묘 옆에 초막을 짓고 죽을
먹으며 눈물로 3년 동안 슬퍼하여 북쪽의 눈과 그름을 다스렸다.

㉞마을에 서인 노파가 있어 귀신이 영혼 의거하여 사람들을 의혹케 하고
어지럽혔는데 화복을 예언하여 반드시 영험이 있었다. 먼 곳을 동정을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으므로 업신여기고 잘난 체하면 재앙이 생기고, 아첨하여 빌
면 병이 나왔다. 어리석은 주민들은 바쁘게 달려가서 공경하며 섬겼다.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 집을 지으니 절의 법당과 같았다. 할미가 높은 자리 위에

23) <최진후설화(편의상 제목)>, 『陟州誌』下, 2권1책, 許穆 編纂, 東海市 松亭洞恒吉
宅 宗孫 金南容氏 藏本, 1662, 『完譯 陟州集』, 삼척시, 1997.

24) <최진후설화(편의상 제목)>, 『眞珠誌』, 沈宜昇, 1916, 『增補 眞珠誌』, 崔晚熙 編,
三陟郡儒道會, 1963.

앉아 요괴스런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협박했다. 여러 곳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투어 돈과 재물을 바쳤는데 어떤 사람은 비단을 묶어 폐백으로 바치고, 어떤 사람은 황소를 바치기도 했다. 고을의 폐해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을 정도였다. 최공과 친구 김면이 요망한 할미의 거처로 가서 큰소리로 꾸짖고 상 아래로 끌어내려 신상을 모셔놓은 방에다 삼백 여 줄기의 쭈을 태우자 기력이 좋던 노파가 났을 잃고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 이로써 요괴의 우환이 마침내 그쳤다.

㉔ 최공이 복령을 넘는데 해는 지고 길이 멀었다. 갑자기 인적이 있어 찾아가서 유숙을 청하자 주인은 그를 잘 대접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 산허리 일 뿐이었는데, 그 후에 집에 홍역이 퍼져 근심을 했을 때 꿈에 豆神이 나타나 말하였다. “나는 복령에서 길을 가르쳐 주고 머물 곳을 보여준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㉕ 윤형성이 늘 그를 높여 존경하여 말하길 “공의 효성은 천성에서 나왔소. 예학에 순수하고 독실하여 특별한 행적이 있으니 어찌 선한 선비가 되는데 그치겠는가?”라고 했다. 호를 취병이라 했으며, 효종 경인년(1650)에 그 마을에서 정문을 세워 효행을 기리도록 했다. 계속 사람에서 건물을 세울 것을 논의하여 힘써 이뤄 보고자 했으나 성취하지 못했다.²⁵⁾

우선, [자료4]-①·②의 효열이적 계열에 속하는 텍스트들은 효열이적 에피소드([자료4]-①·②-㉔)와 효자비 건립 사적([자료4]-①·②-㉕)이 결합된 구조로 되어 있다. 한 겨울에 잉어·평²⁶⁾을 구하고자 한 효성으로 보응을 얻거나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흘려 먹어서 양친의 병구완을 했다는 에피소드들을 중첩한 끝에 중앙정부로부터 정려비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효성감응의 신이화소만 제외하면 최진후의 실제 역사적 행

25) <최진후실화(편의상 제목)>, 『陟州節義錄』, 金九燮 著, 東海市 松亭洞恒吉宅 宗孫 金南容氏 藏本, 1798~1859, 『完譯 陟州集』, 삼척시, 1997.

26) 각편에 따라 딸기와 고사리로 제시되기도 한다.

적과 일치한다. 최진후의 모친은 그가 37세 되던 1640년(인조18년)에 임종하였는데, 평소에 모친이 즐기던 꿩과 잉어를 상시로 구하여 봉양하였고, 모친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손가락을 단지(斷指) 하여 병구원을 하였으며, 모친의 임종 후에는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다. 이러한 효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당시로서는 드물게 생전인 48세 되던 1650년(효종 원년)에 효자비각(孝子碑閣)을 제수 받았다.²⁷⁾ 7년 뒤인 1657년부터 부친이 병으로 드러눕자 1666년 임종 직전까지 9년간 병구원을 하였으며, 부친의 임종 뒤에는 또 3년간을 시묘살이 하였다. [자료4]-①·②의 효열이적 계열의 설화 텍스트들은 최진후의 이러한 실존 효열 사적을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효성과 보응인 것처럼 신이하게 채색해 놓았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효열의 유교적 지배관념을 민중들에게 확산시키기에 좋은 보다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대중적·통속적인 신이소들과 결합시킨 결과다.

이처럼 실존 효열 사적과 비교적 일치되는 [자료4]-①·②의 효열이적 계열의 설화 텍스트들 속에는 성차의 차별적인 지표가 특별히 부각되어 있지 않다. 열거되어 있는 효열이적들은 열녀전이나 효녀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즉, 효열 가치의 여성실행자에게도 똑 같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클리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료4]-①·②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17세기 강원도 지역의 유교이념화가 해당 지역의 지방사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최진후가 속한 강릉최씨(江陵崔氏)는 고려 충숙왕의 부마 최문한(崔文漢)을 시조로 하는 강화계(江華系)가 고려말기에 강릉으로 낙향하여 삼척·양양·평창까지 집성촌을 일구었던 대표적인 강릉·삼척 일대의 토호(土豪) 출신 재지사족이다.²⁸⁾ 이 강릉·삼척 일대는 전통적으로 토호의 발호가 극

27) 비각의 전면에는 제액(題額)이 걸려 있는데 “大明朝鮮國眞珠處士崔鎮厚之間”라고 쓰여 있으며, 비각 내부에는 “孝子眞珠處士崔公旌閭移建記”라고 게판되어 있다.

심했던 지역 중의 하나인데, 특히 삼척은 조선 건국조 이성계의 5대조인 목조(穆祖, ?-1274) 이안사(李安社)가 전주에서 이주해 와서 살았던 곳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태조 2년인 1393년에 목조의 외향이라는 이유로 삼척부로 승격되었고 4년 뒤인 1397년(태조6년)에는 삼척진이 설치되었으며, 태종13년인 1413년에는 삼척도호부로 승격되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화는 더디게 이루어져서 인조9년인 1631년에서야 삼척부내에 매곡·부내·노곡·덕번·북평·박곡·미로·소달·장생리의 9개 소단위 행정구역이 설치되었다.²⁹⁾ 한편, 강릉은 조선 성리학의 도종으로 칭송받는 율곡의 고향으로서 재지사족들에 의해 서원 건립이 비교적 이른 시기인 16세기 말엽(1592년, 선조25년)에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8년이나 지난 17세기 중엽(1630년, 인조8년)에서야 송담서원(松潭書院)이 완공되었다.³⁰⁾ 토호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성리학을 해당 지역의 지배이념화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보면, 효종 4년인 1653년 6월 14일과 윤7월 13일에는 강원도 강릉부에 내린 서리를 빌미로 토호의 발호를 조사케 하는 동시에 감사로 하여금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의 사건을 조사케 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³¹⁾ 이 과정에서 삼척 일대 지배이념을 성리학으로 교체하는데 앞장선 재지사족의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강릉최씨였다. 1624년(인조2년)에 서원 건립 여부가 최종 결정 난 직후인 1630년(인조8년)에 강릉부 유생 최언침

28) 임호민, 「조선 후기 강릉지방 사족의 향촌활동에 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29) 전국을 8도로 나누고 소단위 행정구역인 군·현과 향소부곡으로 구성된 중앙집권적인 지방행정체제가 15세기 태종조에 이미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사실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늦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30) 임호민, 「17세기 강릉사족의 松潭書院 建立과 栗谷陸廡疏 전개과정」, 『율곡사상연구』18, 율곡학회.

31) 『朝鮮王朝實錄』孝宗條.

(崔彦琛) 등은 서원의 경제력 향상과 위상 강화를 위해 조정에 사액을 요청하였고 30년 뒤인 1660년(현종 1)에 이를 운허 받았다.³²⁾

최진후가 효열사적으로 효자각을 생전에 제수 받은 이례적인 사건도 해당 지역의 전통적인 토호였던 강릉최씨 가문이 사족화 한 후 성리학적 지배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던 기반 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진다. 강릉최씨 출신인 최진후는 9세에 수학을 시작하여 16세에 『소학(小學)』과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익혀 실천하였던 유생으로, 그의 행적은 강릉·삼척 일대에서 이루어진 상기 성리학적 이념질서 구축과정과 맞물려 있다. 최진후가 차례로 양친의 시묘살이를 한 1640년과 1666년은 송담 서원 건립이 결정 난 이후부터 완공 시기 사이에 걸쳐 있으며, 이례적으로 생전 효열사액(孝烈賜額)이 내려진 1650년은 효종이 직접 나서서 강릉 일대 토호의 발호에 대한 감찰을 독려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 한편, 1657년부터 1666년까지 무려 9년간 부친의 병수발을 했던 시기는 삼척 지역에 음사를 철폐하고 향약을 실행하여 향촌민의 생활 속에 성리학적 이념질서를 뿌리내리게 만들었던 허목이 삼척부사로 재임했던 기간(1660년, 현종1년-1662년, 현종3년)와 겹쳐지는데, 허목은 최진후 살아 생전에 그의 정려비각에 치제(致祭)를 올리기도 했다. 최진후는 허목에 앞서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재임했던 강백년(姜栢年, 1603-1681)에게 등용되어 『주자가례(朱子家禮)』 목판간행과 향교중수 등의 성리학적 질서 확립 사업을 실행하기도 하였다.

최진후가 이처럼 17세기 전후 강릉·삼척 일대를 중심으로 성리학적 질서를 구축했던 재지사족의 관념적인 남성아이콘이었다는 것인데, 정작 [자료4]-①·②에는 남성 중심적인 성리학적 지배이념을 표상할 남성성의 지

32) 임호민, 앞의 논문.

표가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종속화·객체화를 통해서 남성의 지배적 위치를 확인받는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표상하는 젠더화 된 남성성은 여성을 상대적인 대상화 할 때 비로소 명시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7세기 강릉·삼척 일대에서 이루어진 성리학적 지배 이념의 지역화와 내면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야기 담론화하기 위해서는 성차 초월적인 효열 화소 외의 대여성적(對女性的)인 남성성이 필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최진후가 마고여신을 살해하는 살고 화소의 삽입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료5]-①·②가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출현한 변형 텍스트가 된다.

[자료5]-①·②의 기본 골격은 효열이적([자료5]-①-㉠)과 정려사적(旌閭事蹟)([자료5]-①-㉡)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 성리학적 지배이념이 서두와 결미에서 수미상관하게 결합되어 있는 구조가 된다. 여기서 [자료5]-①·②-㉠은 [자료4]-①·②-㉠, [자료5]-①·②-㉡는 [자료4]-①·②-㉡에 각각 대응된다. 효열이적과 정려사적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자료5]-①·②-㉢는 앞서 [자료2]-①·②에서 제시했었던 마고할미 살해담에 해당한다. [자료2]-①·②의 마고할미 주인공 계열과 다른 점은 마고여신을 부정적으로 젠더화 시킨 이념적 주체에 해당하면서도 서사적으로는 보조자에 불과했던 최진후가 [자료5]-①·②에서는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변함없이 동원되고 있는 마고여신 살해의 매개체는 최진후의 젠더적 남성성이다. 최진후의 이 젠더적 남성성이 전체 서사 속에서 보조자적으로 삽입되고 있느냐 아니면 주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느냐가 차이점이라는 것인데, 후자가 되면 최진후의 젠더적 남성성은 남성 주체적인 서사의 핵심 구성인자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최진후가 마고여신을 젠더적 남성성으로 살해하는 살고 화소가 삽입되게 되면, 효열이적과 정려사적의 결합양상에 대한 향유층의 수용인식에도 변화가 발생한다. 부정적인 대상으로 젠더화 된 마고여신은 성리학적 지배질서에 위해가 되는 공공의 사회악으로 규정되고, 이 사회 공적을 살해한 최진후의 폭발하는 남성성에 의해 성리학적 지배이념은 더욱 더 선양되어야 할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이다. 즉, 효열이적과 정려사적만으로 구성되어 있던 최진후의 효열설화 텍스트들 보다 이들 살고 화소가 삽입된 텍스트들에서 성리학적 이념 전파라는 향유목적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향유목적은 같지만 목적 달성의 효율성은 살고 화소와 결합된 효열설화의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현격하게 높아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진후의 젠더적 남성성은 17세기 조선의 중앙정부가 삼척·강릉 일대에 구축하고자 했던 성리학적 지배이념 전파를 위한 주체적·영웅적 아이콘이 된다. 본래 성리학적 효열관념을 내면화 하고 있던 최진후란 남성인물이 사회적 지배이념의 패러다임 교체에 따라 부정적으로 젠더화 된 마고여신의 여성성을 폭발적인 젠더적 남성성을 통해 거세함으로써 사회악을 제거한 공공의 선을 지켜낸 사회적 남성영웅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고여신과 육체적으로 대결하여 살해하는 젠더적 남성성 구현은 성리학적 이념 교화를 실현하는 사회문화적 남성영웅성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 단계의 통과의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남성성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해명해 내야 할 것은 마고여신을 살해하는 살고화소가 최진후의 효열이적 화소와 결합되어야만 했던 이유가 된다. 일반적으로 남성성, 즉 아니무스는 4단계의 발전단계를 거쳐서 고양된다고 하는데, 각 단계는 생물학적 남성성, 전쟁영웅적인 남성성, 이념의 직접적인 전파자로서의 남성성, 관념의 영적체험 매개자로서의 남

성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최진후 설화>에서 효열이적과 정려사적은 성리학적 이념이 실현된 예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향유자의 구연에 따라 언어로 전달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념의 효과적인 교화와 내면화를 위해서는 영성에 충격을 안겨주는 극적 체험 제시가 요구되기 마련인데, 이는 말씀의 풀이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육체적 대결의 직접성과 폭발성에 의해 발현시키는 극적 체험 단계를 거쳐야만 이념을 향유자에게 교화시키는 내면화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바꿔서 얘기하자면 젠더화 된 남성성을 매개로 반이념적인 대상과 극렬하게 직접 부딪히는 대결의 과정을 통과할 때 이념의 효과적인 교화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때 전자의 과정은 후자를 위한 전제조건, 즉 통과제이가 되는데, <최진후 설화>에 삽입된 살고 화소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된다고 할 수 있다. 효열이적과 정려사적의 구연만으로는 수용자에게 강렬한 영적 일체감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념에 대한 영적 일체감은 사적의 나열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서사주체가 이념의 실현을 위해 안타고니스트와 대결하여 승리하는 이니시에이션을 극화하여 체험하게 해 줄 때 보다 주동인물에 대한 강렬한 자아동일시와 투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마고할미 설화>에서 이미 부정적으로 젠더화 되어 있던 마고여신을 최진후를 서사주체로 한 <최진후 설화>의 맥락 속에 끌어들이 안타고니스트로 위치시키게 되면, 성리학적 말씀을 육친을 대상으로 한 무성(無性)의 효열 이데올로기 실현을 통해서만 실행하고자 했던 최진후란 인물이 젠더적 남성성으로 여성 안타고니스트를 대상화 하여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거세하는 남성영웅으로 재탄생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진후 설화>에 나타난 마고여신의 살해는 유교적 남성성 획득과 구현을 위한 이니시에이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V. 나오는 말

본 연구는 한국설화의 젠더적(gender) 남성성 탄생과정을 규명해 보고자 했다. 남성성이 지배적 관념의 위상을 차지하게 된 부계제가 모계제를 대체하여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젠더적 남성성의 탄생을 여성성과의 상대적 관계성 속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여성성이 지배적 관념성의 주체성과 등치되던 모계제 시대에도 존재했었던 생물학적 남성성이 어떻게 여성성을 종속화 시켜서 군림하는 사회적 지배관념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가의 문제가 된다. 일단, 생물학적·젠더적 여성성에 대응되는 생물학적·젠더적 남성성의 층위는 생물학적 남성성으로 부성과 육체성·호전성, 젠더적 남성성으로 지배성·주체성을 정리해 볼 수 있다. 특히, 후자의 젠더적 남성성은 젠더화 된 결과가 남성중심적 사회이념 체계의 종속적인 객체성으로 나타나는 여성성과는 정반대의 경우에 위치한다.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발휘되는 것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여성을 지배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역설적으로 생물학적 여성성을 젠더 속에서 발현시켜서 젠더적 여성성으로 만들어주는 남성적 상관물이 된다.

젠더적 남성성의 탄생기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여성성이 젠더적 남성성과의 관계 속에서 젠더화 되는 특정한 대상 자료가 요구된다. 본 연구가 모성·생산성의 생물학적 여성성의 대명사인 주인공인 마고여신을 살해하고 젠더적 남성성을 획득한 강원도의 실존인물 최진후(崔鎭厚)에 관한 설화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마고는 여신의 고유명사이자 전국적으로 산재한 여성신의 일반명사이기도 하다.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변주되기도 하지만 이들은 천지를 창조하고 자연지물을 탄생시키며 생명과 풍요를 주관하는 마고여신이 각 지역마다 특수하게 변주된 지역적 변이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원도

의 마고여신을 살해하고 지배적 남성성을 관념적으로 보편화 시킨 유교적 교화를 강원도 지역에 구축한 최진후는 전국에서 마고여신을 살해하고 젠더적 남성성을 획득한 남성신으로 보편화 시켜서 치환할 수 있는 인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대상 텍스트들 속에서 최진후는 남성성이 특별히 부각되지 않는 인물에서 젠더적 남성성을 폭발적으로 과시하는 남성으로 재탄생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최진후의 젠더적 남성으로의 재탄생은 모계제 사회의 대모신인 마고여신의 생물학적 살해와 젠더적 재배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마고여신 살해를 통한 여신의 생물학적 여성성을 젠더적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은 최진후란 남성이 젠더적 남성으로 확고히 재탄생되는 통과제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최진후를 젠더적 남성으로 탄생시키는 사회문화적 기제는 오늘날의 17세기 전후 시기 강릉·삼척 일대에 구축되어 가던 사족 세력의 유교적 교화 확장이란 지배관념의 역사적 지평과도 맥락이 닿는다. 유교란 이데올로기가 17세기 이후의 조선사회를 지배한 관념이라고 할 때, 유교적 관념체계 구축에 앞장 선 최진후의 젠더적 남성성 획득은 곧 전 지역을 아우르는 지배적 관념성으로서의 남성성 구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강원도 지역설화인 <최진후설화>를 통해서 확인해본 여신살해와 젠더적 남성성의 탄생기제의 각 지역별 확인은 다음의 후속 과제가 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眞珠誌』, 지적박물관 소장, 1916.
『增補 眞珠誌』, 崔晩熙 編, 三陟郡儒道會, 1963.
『한국구비문학대계』2-1, 명주군 옥계면 남양2리 간촌, 1979.
『증보 三陟郡誌』, 삼척군, 1985.
『三陟郡誌』, 沈宜昇 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 1916.
『동해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동해문화원·관동대박물관 공동지표조사보고서, 관동대학교 박물관, 1996.
『東海村史記』, 전국문화원문헌총람, 동해문화원편, 서울:문화체육부, 1997.
『동해 두타산성』, 동해문화원, 1997.
『陟州誌』上, 2권1책, 許穆 編纂, 東海市 松亭洞恒吉宅 宗孫 金南容氏 藏本, 1662, 『完譯 陟州集』, 삼척시, 1997.
『陟州誌』下, 2권1책, 許穆 編纂, 東海市 松亭洞恒吉宅 宗孫 金南容氏 藏本, 1662, 『完譯 陟州集』, 삼척시, 1997.
『陟州節義錄』, 金九嬭 著, 東海市 松亭洞恒吉宅 宗孫 金南容氏 藏本, 1798~1859, 『完譯 陟州集』, 삼척시, 1997.
『동해시 지역의 설화』, 동해시, 2000.

2. 논문 및 단행본

- 『아들 낳은 이야기-강원도편』, 구연자:김무갑(남, 60세), 채록장소:삼척시 상반천리, 이학주 편, 민속원, 2004.
강진옥, 「『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한국민속학회, 1993.
김대숙, 「삼국유사 설화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삼국유사 설화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어문집』15, 2001.
김재용, 「동북아 창조신화와 양성원리」, 『구비문학연구』12, 한국구비문학회, 2001
송석하, 「풍신고(風神考)」, 『진단학보』1, 진단학회, 1934.
이승철, 「동해 북평지역 <마고할미>설화의 시대적 변이양상 고찰」, 『강원민속학』14, 강원민속학회, 2003.
이종주, 「동북아시아 성모 유희」, 『구비문학연구』4, 한국구비문학회, 1997.

- 임호민, 『조선후기 강릉지방 사족의 향촌활동에 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 조현설, 『웅녀·유화 신화의 행방과 사회적 차별의 체계』, 『구비문학연구』9, 한국구비문학회, 1999.
- 최원오, 『동아시아 알타이어계 민족의 민족기원신화에 나타난 특징 연구』, 『구비문학연구』11, 한국구비문학회, 2000.
- _____, 『한국 신화에 나타난 여신의 위계 轉變과 윤리의 문제』, 『비교민속학』24, 비교민속학회, 2003.
- _____, 『곡물 및 농경 관련 신화에 나타난 성적 우위의 양상과 그 의미 곡물 및 농경 관련 신화에 나타난 성적 우위의 양상과 그 의미』, 2006.
- _____, 『<주몽신화>, <세경본풀이>, <목도령형 홍수신화>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2006, 한중인문학회, 2006.
- _____, 『모성(母性)의 문화에 대한 신화적 담론: 모성의 기원과 원형』,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 최은숙, 『『삼국유사』에 나타난 모성의 존재 양상과 특성』 『삼국유사』에 나타난 모성의 존재 양상과 특성』, 『동방학』27, 2013.

Abstract

Where did the Birth of the Masculinity of Korean Folktale,
Minority of the Masculinity's Research History and
Starting Point of the Masculinity of Gender
- Initiation of Killing Goddess and Masculinity Birth
in <Choi Jin Hoo> Folktale -

Kwon, Do-Kyung

This paper was willing to investigate the birth of the Masculinity in Korean Folktale. It is to inquire into the Birth of the gendered Masculinity in relativity with womanhood in the point that a patrilineal system was replaced Matrilimy.

there are paternity and physicality · bellicosity as biological masculinity and masculinity · subjectivity as gendered masculinity in masculinity corresponding to biological · gendered womanhood. Especially the latter gendered masculinity is that dominates and uses violence against woman. Paradoxically it is masculine correlative that fetches out biological womanhood in gender and makes it gendered womanhood.

To investigate the mechanism of the Birth of the Masculinity, materials that biological womanhood comes to be gender in the relationship with gendered masculinity is necessary. This is the reason that this study makes folktale about a historical real person at Gangwondo Choi jin hoo to kill godmother Mago goddess and to accept gendered masculinity research object.

In target texts, Choi jin hoo is being reborned from the person who masculinity is not highlighted specifically to character make a show of gendered masculinity explosively. This Choi jin hoo's rebirth to gendered masculinity gets accomplished through killing Margo biologically and gendered replacement. That is to say, the process that replace goddess's biological

womanhood a sort of gender through killing Margo is initiation that Choi jin hoo is reborn gendered man.

Sociocultural mechanism that is reborn Choi jin hoo as gendered man reaches the context to historical prospect of ruling conception that local noble family spreaded confucian indoctrination in Gangneung · Samcheok around the 17th century. It is conform to building of masculinity as dominant ideality to cover all areas that Choi jin hoo acquired gendered masculinity, as the notion that confucian ideology ruled Chosun society around the 17th century.

Key Word : Masculinity, Gender, gendered Masculinity, Killing Goddess, Choi Jin Hoo, <Choi Jin Hoo> Folktale,

권도경

소속 : 세명대학교 미디어한국어문학과 조교수

주소 : (390-711) 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신월동) 세명대학교 학술관 529호

전화번호 : 010-4655-8993

전자우편 : dkkwon@semyung.ac.kr

이 논문은 2014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4년 11월 2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3일 게재 확정됨.
